

한미 FTA 협상 타결... 미국후 수입쿼터 2배 ↑

화물차 관세철폐 20년 연장·대미 철강수출 286만톤 제한 등 합의... 농산물은 포함 안돼

한·미 양국간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11년 폐지하도록 20년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예로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사항도 확대된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제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사항으로 제기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관련, 투자자 납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안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 품목중 하나인 관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톤을 확보, 203만톤을 기록한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전체 철강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으로, 미

쿼터로 인한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된 가운데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 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철강업체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최수호 기자

한은, 전북 도내 중기에 400억 금융 지원

한국은행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에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400억원을 활용해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액 기준으로는 1600억 원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전라북도청의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받은 업체나

최근 1년간 한국GM 군산공장에 납품·용역을 제공한 업체다. 또 최근 2년간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에 납품·용역을 제공한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은이 올 연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액의 25%를 연 0.75%의 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한도는 업체당 대출 취급액의 2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은은 최근 5년간 20억원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 '누적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은은 "구조조정이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기업의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금액을 증액하는 등 추가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관원, 상승 원산지 위반 제빵업자에 과징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상승적으로 위반한 제빵 제조업자 A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 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승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2년간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판매(위반)금액에 따라 0.5~4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례는 제도시행 이후 전북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부과된 것으로, A씨는 2016년 2월 중국산 잣을 빵류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서 잣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외국산 밀가루와 국내산 밀가루를 혼합해 빵류를 제조했음에도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우리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

전북농관원은 A씨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금액이 총 99만6000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판매금액(100만 원 이하)의 0.5배인 49만8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전북농관원은 전국적으로 농관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대상은 현재까지 19명으로,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총 9억3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과별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농관원 이윤휴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 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수호 기자

전북은행, JB카드 설맞이 페스티벌 당첨자 경품 증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월 16일에 종료된 'JB카드 설맞이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경품 추첨 당첨자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JB개인카드 회원들의 응모를 받아 진행된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등 100만원(1명), 2등 50만원(2명), 3등 5만원(20명)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했다.

추첨은 무작위로 이뤄졌으며, 건별 10만원 이상 사용 건수가 많을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은행은 응모 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당첨 안내하는 한편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를 띄웠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 JB카드는 설맞이에 이어 신학기 시즌에도 가전, 가구, 도서, 학원, 헬스 가맹점에서 업종별 이용액에 따라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북은행 개인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최수호 기자

“철강관세 협상 마무리... 불확실성 조기 해소”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개정 협상 브리핑 통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2만 톤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제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한 나라처럼 통합되어 있다"며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이고 호주·아르헨티나 철강 수출량은 미미하거나 또는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철강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 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번 쿼터가 전년 대비 대미 수출량 대비 관재류는 111%이지만 강관은 감소폭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크기 때문에 수출성 대변화, 내수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최수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